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 엔비디아 3거래일 연속 하락에 기술 지수 약세

### Key Takeaways

- 엔비디아, 고점 대비 16%나 하락
- 나스닥 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하락
- 국제 유가 1%대 상승, 비트코인 6만 달러 하회

### Summary

• **AI 밸리를 주도해 온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기술 지수 약세를 견인.** 엔비디아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하회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시총 3위 자리는 지켜. 다만, 최근 3거래일 동안 꽤 가파른 가격 조정의 여파는 기술 지수 약세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 반면, 금융 및 에너지 강세에 힘입어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임. 유로화는 프랑스 극우 연합(RN)의 한 중진 의원이 유럽 연합의 재정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약세를 보임. 이에 달러화는 전일 대비 0.3% 하락하였고 유럽 주요국 증시는 1% 넘게 상승.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확전 우려로 1% 넘게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반면, 비트코인은 6% 가까이 하락하며 지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하회. 한편, 이 날 발언에 나선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각각 초과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자 지출 둔화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제외한 경제는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에 낙관적이라고 말해. (다우 +0.7%, 나스닥 -1.1%, S&P500 -0.3%, 러셀2000 +0.4%)

### 특징종목

• 엔비디아(-6.7%)는 최근 3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 16%나 하락.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로는 ①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 ② 회계연도 25년 2분기부터 실적 성장세 기저효과가 반영될 것이란 우려 그리고 ③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내부 거래(매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젠슨 황 CEO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거래일 동안 보유 지분 총 9천 460만 달러를 매각했다고 공시. 또한, 내년 3월까지 528만주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혀. 엔비디아의 약세는 IT 및 반도체 업종 전반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TSMC(-3.1%), ASML(-3.3%), 브로컴(-4.0%), 퀄컴(-5.5%), Arm 홀딩스(-5.8%),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8.7%) 등 관련주 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3.0%), VanEck 반도체 ETF(-3.4%) 등 대표적인 기술 지수 약세를 견인하였음. 애플(+0.3%)은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년 3월 25일까지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소식에 약세. 반면, 웨드부시가 우량한 중소형 은행주들의 실적 추세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하자 M&T뱅크(+1.4%), 이스트웨스트뱅크프(+1.7%), 퍼스트 호라이즌(+2.3%) 등이 상승하였고 S&P 지역은행 ETF(+1.2%)도 강세. 또한, 국제 유가가 1%대 강세를 보이며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에 엑슨모빌(+3.0%)과 셰브론(+2.6%) 등 메이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코노코필립스(+3.4%), 옥시덴탈 페트놀리움(+3.8%) 등 상승.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 국제 유가는 1%대 상승을 기록.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남부 거점 도시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이스라엘-헤즈볼라(레바논) 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커져. 한편, 구리와 철강 등 산업 금속은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2개월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 비트코인은 현물 ETF에서의 자금 유출과 일본 마운트곡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약 14만개의 비트코인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오버행)에 50여일 만에 6만 달러를 하회.

### 한국증시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2%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보합 기록.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84원으로 전일 대비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상승.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은 국내 증시 하방 위험 키울 전망.



# Market Snapshot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9	대형 가치주 ETF (IVE)	+0.8
클린테크 ETF (CTEC)	+0.2	중형 가치주 ETF (IWS)	+0.8
소매업체 ETF (XLY)	-0.4	소형 가치주 ETF (IWN)	+0.8
온라인소매 ETF (EBIZ)	+0.4	대형 성장주 ETF (VUG)	-1.0
미국 인프라 ETF (PAVE)	+0.2	중형 성장주 ETF (IWP)	-0.1
핀테크 ETF (FINX)	+0.1	소형 성장주 ETF (IWO)	-0.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5
클라우드 ETF (CLOU)	-0.7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5
사이버보안 ETF (BUG)	-0.1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	미국 국채 ETF (IEF)	+0.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3	하이일드 ETF (JNK)	-0.0
바이오섹터 ETF (IBB)	+1.9	신흥국 채권 ETF (EMBD)	+0.1
로봇&AI ETF (BOTZ)	-1.0	물가연동채 ETF (TIP)	+0.1
반도체 ETF (SMH)	-3.4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98.61	+2.7	+4.6	+0.7
유틸리티	354.43	+1.2	+0.5	-2.0
필수소비재	833.57	+1.0	+1.9	+1.2
금융	692.27	+1.0	+2.7	+0.2
부동산	241.20	+0.7	+0.4	+3.2
소재	565.91	+0.6	+1.3	-1.5
헬스케어	1,715.86	+0.5	+1.1	+2.1
산업재	1,041.92	+0.4	+1.9	-0.9
커뮤니케이션	306.91	+0.2	+1.0	+3.0
경기소비재	1,474.31	-0.7	+1.7	+3.2
IT	4,269.92	-2.1	-2.7	+5.9

##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81.63	+1.2	+4.7	Dollar Index	105.491	-0.3	+0.2
브렌트유	86.01	+1.0	+2.1	EUR/USD	1.0734	+0.4	0.0
천연가스	2.81	+4.1	-2.3	USD/JPY	159.60	-0.1	+1.2
금	2,344.40	+0.6	-0.1	GBP/USD	1.2685	+0.3	-0.2
은	29.85	-0.1	+0.4	USD/CHF	0.8929	-0.1	+0.4
알루미늄	2,497.50	-0.6	-0.2	AUD/USD	0.6656	+0.2	+0.7
전기동	9,644.00	-0.4	-0.2	USD/CAD	1.3659	-0.2	-0.5
아연	2,846.50	+0.1	+1.1	USD/RUB	88.0000	-1.2	-0.8
옥수수	451.75	-0.4	-4.0	USD/BRL	5.3929	-0.7	-0.5
밀	571.00	-0.7	-9.1	USD/CNH	7.2827	-0.1	+0.2
대두	1,130.50	+0.9	-1.7	USD/KRW	1,389.00	+0.1	+0.6
커피	236.25	+5.0	+5.3	USD/KRW NDF1M	1,384.48	-0.2	+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4.232	-2.3	-4.9	스페인	3.277	-1.0	-3.4
한국	3.262	+2.0	-1.3	포르투갈	3.145	-1.0	-2.8
일본	0.996	+2.1	+6.1	그리스	3.633	-1.0	-2.9
독일	2.419	+0.7	+0.5	이탈리아	3.929	-1.2	-1.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